

# 既成韓藥書 11종의 起源에 대한 書誌學的 根據와 改正 方案에 대한 研究

韓國韓醫學研究院\*, 수창당한약방\*\*,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신현규\* · 황대선\* · 권삼수\*\* · 김용진\*\*\*

## The study on bibliography register basis and Revision plan about origin that 'The 11 established formularies of Korean traditional herbal medicine volumes'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uChangDangHanYakBa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Shin, Hyun-Gyu · Whang, Dae-Sun · Kweon, Sam-Su · Kim, Yong-Jin

1. "Regulation for about kind of formularies of Korean traditional herband preparation method"(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1995-15, 95. 3. 15) and "Regulation for review safety and efficacy of drugs. Article 2. 1 Clause 10." should revise 『Sasanguihak(四象醫學)』 by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that is the name of book.

2. "Regulation for review safety and efficacy of drugs. Article 2. 1 Clause 10." was defining 'The 11 established formularies of Korean traditional herbal medicine volumes' 『Donguisusebowon』 that is defined as "The 11 established formularies of Korean traditional herbal medicine volumes" is 『Susebowon(壽世保元)』 that the Ming period Gong Jung-hyun(龔廷賢) writes. Otherwise, mistake that 『Donguisusebowon』 of Lee Jema(李濟馬) was recorded 2 times occurs. Therefore, 『Susebowon』 of "The 11 established formularies of Korean traditional herbal medicine volumes" is that 『Susebowon』 of the Ming period Gong Jung-hyun writes

3. 『Yaksungga(藥性歌)』 is nonbook in "The 11 established formularies of Korean traditional herbal medicine volumes" and should be erase. Because basis is ambiguous.

4. "The 11 established formularies of Korean traditional herbal medicine volumes" must revise by 10 kinds in "Regulation for about kind of formularies of Korean traditional herband preparation method" and "Regulation for review safety and efficacy of drugs. Article 2." The kinds should be revised by 『Donguibogam(東醫寶鑑)』, 『Jejungsinpyeon(濟衆新編)』, 『Euihakipmoon(醫學入門)』, 『kyungakjeonse(景岳全書)』, 『Susebowon』, 『Bonchogangmok(本草綱目)』, 『Bangyakhappyeon(方藥合編)』,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Gwangjebigeup(廣濟秘笈)』 and 『Donguisusebowon』.

Key Words: Donguibogam(東醫寶鑑), Sasanguihak(四象醫學),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Yaksungga藥性歌).

## I. 서론

1953년 12월 18일, 국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약사법(법률 제300호)에 漢藥種商 업무를 기성 한의서에 의한 의약품 혼합 판매로 규정<sup>1)</sup>하면서 기성한의서라는 용어가 탄생되었고, 기성한의서로 어떤 한의서를 지적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9년 6월 7일 보건사회부 예규 233호를 시작으로 약사법 제36조 2항에 기성한의서 11종을 신설함으로써 11종 한의서<sup>2)</sup>에 수록된 처방에 한하여 혼합 판매할 수 있다<sup>3)</sup>로 하였다.

또, 의약품에 대한 심사규정인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규정 제2조(정의) 1항 10호에 “한약서라 함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95. 3. 15)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약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약성가, 사상의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현재 11종의 한약서의 처방 내용이 한약업사의 처방 조제 권한과 연구·개발된 한약제제의 의약품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있다. 그러나 11종 기성한약서인 『방약합편(方藥合編)』, 『동의보감(東醫寶鑑)』,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광제비급(廣濟秘鑑)』, 『제중신편(濟衆新編)』, 『약성가(藥性歌)』, 『사상의학(四象醫學)』, 『의학입문(醫學入門)』, 『경약전서

(景岳全書)』, 『수세보원(壽世保元)』, 『본초강목(本草綱目)』중에서, 인지도가 높고, 그 기원이 명확한 9종 이외에 사상의학, 수세보원, 약성가 3종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근거의 논란을 안고 있다.

『수세보원』은 明代 龔廷賢의 著述중에 『수세보원』이 있지만, 이를 조선 李濟馬의 『동의수세보원』과 서명이 비슷하여 혼선이 있고, 『藥性歌』는 일부 한약서마다 약성가 부분이 있어, 어느 한약서의 약성가를 지적하는지 알 수 없으며, 『사상의학』이란 한의약 서적이 없어, 사상체질의학을 가르치는 총칭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11종 기성한약서에 대한 기원 및 저자, 출판년도, 인용서적, 처방수 등을 연구하여 3종에 대한 기원 근거를 제시하여 11종 기성한약서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따라 본 규정 개정을 권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11종 한약서에 대한 기원 및 내용

#### 1) 『향약집성방』<sup>5)</sup>에 대한 기원 및 내용

世宗 15년(1433년) 6월에 완성되어 8월에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발간되었고, 조선 세종(世宗) 때 편찬한 향약(鄉藥)에 관한 의방서(醫方書)이다.

이 책은 1431년(세종 13)에 세종이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유효통(兪孝通), 전의감정(典醫監正) 노중례(盧重禮), 동부정(同副正) 박윤덕(朴允德) 등에 게 명하여 이미 제생원(濟生院)에서 만든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 30권의 구증(舊證)과 구방(舊方)을 기본으로 하고, 다시 여기에 모든 방문(方文)을 수집하고 또 당시에 있던 모든 방서(方書)를 빠짐없이 모아서 분류, 첨가하여 1433년(세종 15) 6

\* 교신저자: 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042-280-2626, king@dju.ac.kr

1) 대한한약협회백년사편집위원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약협회백년사. 2006. p. 380.

2) 대한한약협회백년사편집위원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약협회백년사. 2006. p. 416. 예규 시행당시에는 기성한의서였는데 언젠가부터 예고도 없이 기성한약서로 바뀌었다.

3) 약사법(1965.4.3, 법률 제1694호)이후에는 36조에 기성한약서로 되어 있다.

4) 약사법 제36조(의약품판매업의 종류)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5.4.3, 1971.1.13, 1986.5.10, 1991.12.31>

1. 한약업사

2. 의약품도매상

②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다.<개정 1971.1.13, 1986.5.10>

5) 김기욱 외 15명.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 200.

월에 완성한 의서(醫書)이다. 권채(權採)에게 서문을 쓰도록 명하여 동년(同年) 8월에 전라, 강원도에서 나누어 간행하였다.

이 책에서는 『향약제생집성방』의 병증이 338종인 것을 959종으로, 처방이 2,803종이었던 것을 10,706종으로 증보하였다. 또한 침구법(針灸法) 1,476조, 향약본초(鄉藥本草) 및 조제법(炮製法)을 더하여 모두 85권으로 만들었다.<sup>6)</sup> 이 책의 편찬방식은 각권본문에는 각종질병을 두기(頭記)하고 있으며 모두(冒頭)에 ‘론(論)’을 쓰고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직지방(直指方)』, 『성제총록(聖濟總錄)』, 『의방집성(醫方集成)』, 『부인양방(婦人良方)』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구하기도 어려운 중국산 약제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산생되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질병치료에 대한 약제의 의토성(宜土性)을 강조한 것이며, 또 세종이 의약제민(醫藥濟民)의 큰 뜻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편집 및 간행은 우리나라 고유의학의 독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2) 『의학입문』<sup>7)</sup>에 대한 기원 및 내용

1575년(明神宗 萬曆 乙亥三年)<sup>8)</sup> 南豐 李梴이 지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연대는 알 수 없다. 19책의 木板本으로 내용은 주로 張仲景의 『傷寒論』, 劉河濶의 『病原式』, 李東垣의 『內傷論』, 朱丹溪의 『雜病篇』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책별 목록은 (1) 凡例二十一條 先天圖 天地人物氣候相應說 天地人物氣候相應圖 明堂仰伏圖 臟腑圖 用藥檢方綱目 釋方 字音 등 (2) 歷代醫學姓氏 原道統 陰騭 保養 天真節解 茹談論 陰大論 保養說 導引法 運氣論 등 (3) 經絡 臟腑 觀形察色 聽聲審音 등 (4) 問

證 診脈 등 (5) 鍼灸 (6) 本草總論 治風門 治熱門 등 (7) 治濕門 治燥門 治寒門 등 (8) 治瘡門 食治門 등 (9) 食治門 食治方 등 (10) 傷寒證 (11) 傷寒用藥賦 內傷諸方 (12) 雜病提綱 雜病分類風寒暑類 (13) 濕燥火類 內傷 氣血疾虛類 등 (14) 婦人門 (15) 小兒門 外科 (16) 雜病用藥賦上 (17) 雜病用藥賦下 (18) 婦人小兒 外科 用藥賦 (19) 雜病 婦人 小兒外科 總方 救急諸方 水火分治 標本論 求本論 雜治賦 習醫規格 등으로 되어있다.

## 3) 『본초강목』<sup>9)</sup>에 대한 기원 및 내용

李時珍의 字는 東璧이고 晚號를 瀕湖山人이라 하며, 湖北의 蕪州人으로 明武宗 正德13年(1518)에 出生하여 萬曆21年(1593)에 76歲로 死亡하였다.

『본초강목』의 編纂에 關하여 李時珍은 序例中에 “百氏를 蒐羅하고 四方에서 訪探하며, 喜情壬子(31年;1552)에 始作하여 萬曆戊寅(6年;1578)에 끝냈는데 原稿를 3번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 『綱目』을 完成하는데 3차례의 修正과 26年の 期間이 所要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본초강목』은 萬曆六年(1578년)완성하여 萬曆二十四年(1596년)十一月 上呈하였다. 전부 52권으로 1892종의 약물이 수재되어 있다.<sup>11)</sup> 그러나 본서에 기재된 한약의 수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 『總目』의 끝에 “計16部 62類 1880種”이라 하였지만, 목록과 본문의 약수, 부록약수, 有名未用약수 등을 계산하면 총1903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처방은 모두 11096방으로 이중에서 8161방은 李時珍이 수집하여 개정한 처방이다.<sup>12)</sup>

## 4) 『동의보감』<sup>13)</sup>에 대한 기원 및 내용

9) 柳長華. 李時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668.

10) 서영배. 중국의 본초학사. 대전. 대전대학교대학원. 1990. p. 85.

11) 高曉山. 中藥葯性論. 도서출판 정담. 1994. p. 508.

12) 서영배. 중국의 본초학사. 대전. 대전대학교대학원. 1990. pp. 90-92.

1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HEJ/HEJ\\_NODEVIEW.jsp?setid=88626&pos=19&type=HEJ&pctype=list&subtype=j](http://e-kyujanggak.snu.ac.kr/HEJ/HEJ_NODEVIEW.jsp?setid=88626&pos=19&type=HEJ&pctype=list&subtype=j)

6) 신순식. 한국한의학사 재정립(상). 서울. 한국한의학연구회. 1995. p. 225.

7) 洪元植 외 1명. 新編中國醫學史. 대전. 周珉出版社. 2004. p. 273.

8) 車雄碩.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2001. p. 6. ; 1575년, 1576년, 1571년 등 이견이 분분하다.

선조때 內醫 許浚(?-1615)이 선조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醫書이다. 조선조에 들어 1431년(세종 13) 우리나라의 기존 의서들을 모은 『향약집성방』 85권, 1445년(세종 27) 중국의 의서들을 모은 『의방유취』 266권이 간행되었으나 이들은 권질이 너무 방대하여 재간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 醫家들이 구해보기가 힘들었다. 이에 宣祖代 御醫 鄭敬先, 楊禮壽가 『醫林撮要』 13권을 편찬하였으나 이는 너무 간략하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동의보감』의 편찬 경위는 序文, 곧 1611년(광해군 3) 李廷龜가 쓴 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에 의하면 ‘丙申(1596년) 年間에 선조가 중국의 醫書들을 抄輯한 것은 庸瑣하여 보기에 부족하다 하고 허준에게 여러 方書들을 편집하게 하였다.

이에 허준은 儒醫 鄭誥, 太醫 楊禮壽, 金應鐸 등과 함께 局을 설치하고 의서들을 찬집하기 시작하였는데 丁酉再亂이 발발하여, 諸醫들이 흩어지면서 일이 중지되었다. 후에 다시 선조가 허준에 명하여 허준이 홀로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왕실 소장본 方書 5백권이 참고되었다. 이 사업은 광해군 3년에 비로소 완성되었고 광해군은 곧 內醫院으로 하여금 인쇄하여 중외에 반포하게 하고 내의원 提調 李廷龜로 하여금 서문을 쓰게 하였다고 했다. 서문의 말미에는 이 서문이 萬曆 39년(1611) 이조판서 李廷龜에 의해 쓰여졌으며 또 萬曆 41년(1613)<sup>14)</sup>에 내원에서 奉敎刊行하며 勸校官은 內醫院 直長 李希憲, 內醫院 副奉事 尹知微임을 밝힌 기문이 붙어 있다. 『동의보감』 內景篇 권1 ‘歷代醫方’ 부분에서는 본서의 편찬에 참조된 80여종의 의서가 명기되어 있는데 중국의 의서로는 伏羲氏 所著로 알려진 『天元玉冊』, 神農氏 所著로 알려진 『本草』 이래 明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의서들이 망라되었다. 우리나라의 의서로는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의림촬요』 3종만이 참조되었다. 『동의보감』은 內景篇 6권, 外形篇 4권, 雜病篇 11권, 湯液篇 3권, 鍼灸篇 1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의보감』은 1613년 25책으로 초간된 이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에도 전파, 3국에서 지속적

으로 간행되었다.

한약의 수는 모두 14부 1400종이다.<sup>15)</sup>

### 5) 『수세보원』에 대한 기원 및 내용

龔廷賢의 著述로 萬曆 43년(1615년)에 발간하였고,<sup>16)</sup> 『醫學正傳』 (1515년 虞博撰), 『의학입문』(1575년, 李梴撰)과 더불어 金元時代의 의학성과를 계승한 명대의 대표적인 綜合醫書이다. 『수세보원』은 목차에 十千의 명칭을 붙였으며 10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1권은 總論에 관한 내용이며 2권은 中風, 傷寒, 中濕, 中寒, 溫疫 등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 3권부터 6권까지는 內科雜病에 관한 내용이고 7권은 婦人病 8권은 小兒疾患 痘疹, 麻疹에 관한 내용이다. 9권은 外科疾患이며 10권은 單方, 灸法, 五絶, 中毒 등 기타 질병에 관한 내용이다.<sup>17)</sup>

### 6) 『경약전서』<sup>18)</sup>에 대한 기원 및 내용

景岳의 말년에 64권을 100만자로 지었으며, 康熙 三十九年(1700년)에 간행되었다.

明대의 醫家 張介賓(嘉靖 42년(1563)-崇禎 13년(1640)이 편찬한 醫書 全集. 표지 서명은 없고 권두 및 권말 서명은 『경약전서』, 관심 서명은 『全書』, 내제지 서명은 『경약전서』이다. 1책의 內題紙에 ‘嘉慶 24년(1819년, 清 仁宗 嘉慶 24) 夏鑄, 張介賓先生 著, 景岳全書, 金閨書業堂 藏板’이라는 기문이 있다. 매권의 권두 서명 아래에 ‘會稽 張介賓 會卿 著, 會稽 魯超 謙菴 訂’이라는 기문이 있다. 본서는 그의 의서들을 모두 모아 놓은 全集이다. 첫머리에 校訂者인 魯超가 붙인 서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吳郡의 張介賓先生의 『경약전서』가 인구에 회자된 지 오래이나 이를 보지 못하였는데, 마침 林汝暉가 가지고 와서 보고 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목차가 있는데, 권1~권3 傳忠錄, 권4~권6 脉神章, 권7~권8 傷寒典, 권

15) 高曉山. 中藥葯性論. 도서출판 정담. 1994. p. 565.

16)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7.

17) 차용석.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1997. p. 14.

18) 李志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865.

g&lclass=10&cn=GI40520\_00.

14) “萬曆四十一年十一月 日內醫院奉 敎刊行”

9~권37 雜證談, 권38~권39 婦人規, 권40~권41 小兒則, 권42~권45 痘疹詮, 권46~권47 外科鈴, 권48~권49 本草正, 권50~권51 新方八陣, 권52 古方八陣, 권53 古方補陣, 권54 古方和陣, 권55 古方攻陣, 권56 散陣, 권57 寒陣, 권58 熱陣, 권59 固陣, 권60 因陣, 권61 婦人, 권62 小兒, 권63 痘疹, 권64 外科이다.

### 7) 『광제비급』<sup>19)</sup>에 대한 기원 및 내용

함경도 관찰사였던 이병모(李秉模)의 주선으로 己酉年(1789)에 평안도 의사인 이경화(李景華)에게 시켜 3개월 만에 正祖14년(1790년) 발간되었다.

이 책의 저술의도는 구급질환에 응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책의 목차도 구급질환이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잡병, 부인, 소아의 내용이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 『동의보감』, 『수세보원』(공정현 저)<sup>20)</sup>, 『본초강목』을 다수 인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은 『동의보감』이다. 이 책은 구급, 잡병, 부인, 소아의 네 개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각 부분의 내용은 주로 졸도, 중독, 급통 등 급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처방도 주로 단방 내지는 간단한 처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광제비급』의 저술목적이 일반인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로 『동의보감』중 인삼(人蔘), 당귀(當歸)와 같이 얻기 쉬운 약재들의 향약단방치험(鄉藥單方治驗)을 쓰고, 그 약명에는 우리말 이름을 붙여 일반 사람도 알기 쉽게 하였다.

### 8) 『제중신편』<sup>21)</sup>에 대한 기원 및 내용

正祖 23년(1799년) 12월 11일 성립되었다. 正祖가

太醫 康命吉에게 명하여 편찬케 한 醫書이다. 左議政 李秉模의 序文과 著者 康命吉의 跋文이 있으며 1799년(正祖 23)에 刊行한 內閣本이다. 8권중에 (1)은 風寒暑濕燥火 등, (2)는 內傷 虛勞 身形 精氣 神血 夢聲音 言語 津液 痰飲 등, (3)은 五臟 六腑 蟲 小便 大便 頭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등, (4)는 頭項 背胸 孔 腹臍 腰 脇 皮 脈 手足 毛髮 前陰 後陰 霍亂 嘔吐 咳嗽 등, (5)는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痘 疾疫 癘疫 邪崇 癰疽 諸瘵 諸傷 解毒 救急 雜方 등, (6)은 婦人 胞 등, (7)은 小兒 療疹 養老 등, (8)은 藥性歌로 나누어져 있다.

凡例에는 다음과 같이 편찬 동기와 방법을 밝히고 있다. ‘古方은 비록 많아도 症論이 浩繁해서 후학이 요령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이제 널리 諸方을 망라해서 요점만을 취하였다. 症과 脈은 각각 분류를 하고 써야 할 處方은 아래다가 列書해서 讀者로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하였다. 世俗에 單方이라도 쓸만한 것은 또한 수록하였다. 脈의 症治 3조는 다 諸方에서 취하여 書中에 艱요한 말은 簡하여 成文해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引用書目은 수록치 않고 다만 藥方 아래만 原典을 표시하였다. 老人의 病은 少壯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增補하였다. 前症의 治法은 古方이 지금에 試驗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梗概만 남겨둔다. 藥性을 註解한 것은 方書에 비록 많으나 너무나 浩繁하기 때문에 다만 『만병회춘』 『수세보원』의 歌에다 새로 83首를 덧붙였다. 일찌기 지은 『經驗方』에는 간혹 論症해서 添補한 것은 僭越함을 면치 못하나 또한 수록해서 다 『新增』이라고 써서 구별하였다. 內醫院에서 進上하는 藥은 모두 다 『內局』이라고 해서 구별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편찬된 이 책의 인용 書目은 『靈樞經』, 『醫學正傳』, 『丹溪心法』, 『萬病回春』, 『壽世保元』, 『本草綱目』, 『醫學入門』, 『百代醫宗』, 『痘疹心法』, 『保嬰撮要』, 『痘科彙編』, 『赤水玄珠』, 『醫方集略』, 『景岳全書』, 『濟陰綱目』, 『得效方』, 『張氏經驗方』, 『趙氏經驗方』, 『黃氏經驗方』, 『醫林撮要』, 『東醫寶鑑』 등이다.

저자 康命吉은 1737년(英祖 13)에 태어났으며 字는 君錫이고 本은 順天이었다. 郡守를 거쳐 楊州 牧

19) 김기옥 외 15명.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 340.

20) 차웅석.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1997. p. 15.; 광제비급의 목차 대강은 救急, 雜病, 婦人, 小兒, 痘疹, 單方治驗순으로 수세보원 각론의 목차순과 동일하다.

2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kyujanggak.snu.ac.kr/BA/SGP-144-019292.htm

使를 지내고 醫官으로 들어가 本書를 編著하였다. 그런데 1800년(純祖 卽位年)에 正祖의 病환을 治療하는데 過失을 범했다고 해서 醫官들이 處罰될 때에 死刑되었다. 이 책은 『광제비급』과 함께 조선조 후기의 대표적 醫書로 일반과 醫家들에게 널리 이용되었으나 학술적 가치로는 『동의보감』에 뒤진다고 한다.

9) 『방약합편』<sup>22)</sup>에 대한 기원 및 내용

1885년(高宗, 22) 黃泌秀가 그의 아버지인 黃度淵이 1869년(고종 6)에 지은 『醫方活套』를 증보·편찬한 의학적적으로 『방약합편』이 있는데, 동일인이 『방약합편』을 2월에 간행한 후, 같은 해 가을에 『방약합편』의 본문 말미에 ‘石隱補遺方’과 ‘輪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을 첨가한 것이 바로 『重訂方藥合編』이다. 『重訂方藥合編』의 體裁는 方藥合編源因, 醫方活套序, 目錄, 惠庵心書方藥合編, 石隱補遺方, 輪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에 해당하는 ‘惠庵心書方藥合編’을 네 단으로 나누고 가장 뒷단에 새로이 보충한 ‘藥性歌’를 두고 나머지 세 단에는 기존의 ‘醫方活套’를 수록하였다. 이 ‘藥性歌’ 부분에 藥物名을 한글로 기록한 것이 있어 19세기 국어 어휘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方藥合編의 처방들은 上統(補劑)에는 補하는 처방 123방, 中統(和劑)에는 和解하는 처방 181방, 下統(功劑)에는 瀉하는 처방 163방, 石隱補遺方 17방, 諸傷門7방, 解毒門 2방, 雜方門 14방을 합하여 총 507방이다.

10) 『약성가』에 대한 기원 및 내용

『약성가』는 약재의 성질과 효능을 읊은 한시(漢詩)를 말하는 것으로, 각종 한약서마다 약성가 부분이 있어, 어느 한약서의 藥性歌를 지적하는지 알 수 없다. 韓醫史學에서 藥性歌에 가장 근접한 서적으로는 明代 龔廷賢이 撰한 四言節句의 『藥性歌訣四百味』(또는 『약성가』라고도 함)로<sup>23)</sup>, 이 책은 四言의 韻語文體로 400종의 한약 성미, 효능, 주치에 대한 내용

22)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96.  
23)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149

을 실었으나, 어렵고 심오하다.<sup>24)</sup> 또 기존 11종 기성한약서중에 『의학입문』, 『제중신편』, 『수세보원』, 『방약합편』에는 藥性歌가 들어 있다.

따라서 이들 서적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약성가』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간이화시키고 민간에게 널리 보급되어 매우 친숙한<sup>25)</sup> 『방약합편』속의 藥性歌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11) 『사상의학』<sup>26)</sup>에 대한 기원 및 내용

현재 『사상의학』이라는 한의약 서적이 없고 다만 李濟馬가 『동의수세보원』 4券 2冊을 저술하여 사상의학을 제창하였으므로, 『사상의학』은 『동의수세보원』을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았다. 李濟馬가 高宗 30년 1893년부터 쓰기 시작하여, 1894년 탈고하고, 1900년 性命論부터 太陰人諸論까지 增刪하였다. 光武五年 1901년에 함흥군 울동에서 울동계를 만들어 최초로 출판하였다. 이후 1941년도 까지 7판이 나왔으며, 현재의 본(행림출판, 1993년 중판)이 초판본과 같은 본인지 알 수는 없다.<sup>27)28)</sup> 처방으로는 단방을 포함하여, 少陰人 방약제로 66방, 少陽人 방약제로 36방, 太陰人 방약제로 52방, 太陽人 방약제로 14방으로 張仲景의 『傷寒論』, 唐·宋·元·明代 醫家들의 처방과 이제마가 새로 만든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9)</sup>

2. 11종 기성한약서에 대한 기존 연구

윤재창은 약사법 제36조 제 2항의 규정한 기성한약서에 대해 해석하면서, 11종중 9종의 한의서는 『동

24) 好讀書 도서소개홈페이지. www.bookssearching.com  
25) 김형태, 윤창렬. 방약합편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외사학회지. Vol.5.  
26) 김기욱 외 15명.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 441.  
27) 韓榮穆. 도올 김용옥선생님의 동의수세보원 강의. 동국대학교. 1994. pp. 29-32.  
28) 대한한약협회백년사편집위원회. 대한한약협회백년사. 대한한약협회. 2006. pp. 1132-1133.  
29)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한국의학사논문집. 경희대학교 1995. pp. 297-298.

의보감, 『제중신편』,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광제비급』을 말하였으나, 『약성가』, 『사상의학』은 없다<sup>30)</sup> 고하였다.

김남주<sup>31)</sup> 등 보고서에 11종 한약서의 기원과 발간년도를 밝혔는데, 『동의보감』 1611년, 『제중신편』 1799년, 『의학입문』 1575년, 『경악전서』 1624년, 『수세보원』 17세기, 『본초강목』 1590년 그 외 『방약합편』 1885년, 『향약집성방』 1431년, 『광제비급』 1790년, 『약성가』 1868년, 『사상의학』 1895년 발간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기원과 발간년도의 참고서적<sup>32)</sup>에 오류가 있어 발간년도가 정확하지 않다.

대한한약협회에서 발간한 百年史에는 이 기성한약서 11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원 한의서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制定된 既成韓藥書의 目錄들을 評審하여 보면 누구에 의하여 制定되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韓藥書에 대한 學問的 깊이가 缺如되었다는 면을 엿볼 수 있다. 藥性歌 내용은 本草綱目に 다 包含되어 있으며, 壽世保元은 東醫壽世保元을 誤記한 듯하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四象醫學은 二重의인 내용이 된다. 만약 壽世保元이 맞다면 龔延賢의 著書로는 차라리 萬病回春이나 古今醫鑑이 더 選好되는 書名이다.”

그외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제2조(정의) 1항10호에 “한약서라 함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95. 3. 15)’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약성가, 사상의학을 말한다”라고 하여 수세보원을 동의수세보원으로 기재하였다.

### III. 고찰

11종 기성한약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11종 기성한약서중 『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의학입문』, 『경악전서』, 『본초강목』은 그 서지학적 기원이 명확하지만, 『수세보원』, 『사상의학』, 『약성가』 3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수세보원』은 明代 龔延賢의 著述중에 『수세보원』이 있지만, 이를 조선 李濟馬의 『동의수세보원』과 서명이 비슷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에서 『동의수세보원』으로 기재하였다. 『수세보원』은 『의학정전』, 『의학입문』과 더불어 金元時代의 의학 성과를 계승한 明代의 대표적인 綜合醫書이다. 그리고 『광제비급』, 『제중신편』, 『방약합편』에서도 이 龔延賢의 『수세보원』을 인용하여 한의약 서적을 완성하였으므로 지명도와 비중이 있는 서적이다. 따라서 11종의서중의 『수세보원』은 明代 龔延賢의 著述인 『수세보원』이고,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에서 李濟馬의 『동의수세보원』의 기재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사상의학』이라는 미존재 서적을 기재하였으며, 이 사상의학을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으로 본다면 한 규정에서 동일한 서적을 두 번 기재하는 오류를 가지게 된다.

『사상의학』은 한의약 서적이 아니며, 나머지 10종은 모두 서적이거나 서적의 일부인데 사상의학만 이질적으로 들어 있다. 만약 사상의학이 사상체질의학 체계의 모든 처방의 총칭이라면 李濟馬의 사상의학 原典인 『동의수세보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약성가』는 한약서의 근원이 불분명하고, 이미 다른 10종 한약서속에 한약에 대한 性味, 效能에 대한 藥性歌를 수록하였다. 따라서 11종 한약서에서 藥性歌를 삭제하여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개정해야한다고 사료된다.

30) 윤재창. 최신경향 한약업사시험문제집. 대광인쇄사. 1980. pp. 117-118.

31) 김남주 외 3명. 한방의료보험활성화를 위한 한약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 개발.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1996. p. 38, 72.

32)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을 통해 한약서의 기원과 발간년도를 말함.

표. 10종 기성한약서에 대한 내용 비교

| 서명     | 국적     | 인용 의서 <sup>33)</sup>                        | 11종내<br>인용의서수 | 藥性歌(賦) 수재<br>유무 및 약수 <sup>34)</sup> | 처방수                   | 발간년도  |
|--------|--------|---|---------------|-------------------------------------|-----------------------|-------|
| 鄉藥集成方  | 한국(조선) | -   | -             | 703종                                | 10,706방               | 1433년 |
| 醫學入門   | 중국(명)  | -   | -             | ○<br>(967종) <sup>35)</sup>          | 2,259방                | 1575년 |
| 本草綱目   | 중국(명)  | -   | -             | 1903종                               | 11096방 <sup>36)</sup> | 1596년 |
| 東醫寶鑑   | 한국(조선) | 鄉藥集成方/醫學入門 등<br>86종                         | 2종            | 1400종                               | 3,494방                | 1613년 |
| 壽世保元   | 중국(명)  | -   | -             | ○<br>(400종) <sup>37)</sup>          | -                     | 1615년 |
| 景岳全書   | 중국(명)  | -   | -             | 302종                                | 2,626방<br>(314방 중복)   | 1700년 |
| 廣濟秘笈   | 한국(조선) | 鄉藥集成方/東醫寶鑑/本<br>草綱目/醫學入門/壽世保<br>元 등 71종     | 5종            | 50종 <sup>38)</sup>                  | -                     | 1790년 |
| 濟衆新編   | 한국(조선) | 壽世保元/本草綱目/醫學<br>入門/景岳全書/東醫寶鑑<br>등 21종       | 5종            | ○<br>(384종)                         | 1,200방                | 1799년 |
| 方藥合編   | 한국(조선) | 壽世保元/本草綱目/醫學<br>入門/濟衆新編/東醫寶鑑/<br>景岳全書 등 67종 | 6종            | ○<br>(515종)                         | 507방                  | 1885년 |
| 東醫壽世保元 | 한국(조선) | -   | -             | -                                   | 168방                  | 1901년 |

#### IV. 결론

1. 11종 기성한약서의 『수세보원』은 明代 공정현의 『수세보원』이다. 따라서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규정 제2조(정의) 1항 10호에 한약서의 정의중 『동의수세보원』은 明代 공정현의 『수세보원』의 오류라고 사료된다.

2.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95.3.15)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제2조(정의)에서 『사상의학』을 서적명인 『동의수세보원』으로 개정하여야한다.

3. 11종 기성한약서중 『약성가』는 서적이 아니며, 근거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10종의 기성 한약서 속에 한약에 대한 효능과 주치에 대한 약성가가 기술되어 있으므로, 따라 1종의 『약성가』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되어도 규정의 본 취지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4.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95. 3. 15)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제2조(정의)에서 기성한약서는 10종으로, 『동의보감』, 『제중신편』, 『의학입문』

33) 기성한약서 11종 중심으로 인용관계를 말함  
 34) 책에서 부록 및 별책으로 한약을 기술한 부분  
 35) 高曉山, 中藥葯性論. 도서출판 정담. 1994. p. 563. ; 763味, 附 204味  
 36) 高曉山, 中藥葯性論. 도서출판 정담. 1994. p. 508. ; 證類本草 舊附 2935방에 8161방을 새로 더하여 11096방  
 37) 高曉山, 中藥葯性論. 도서출판 정담. 1994. p. 586.  
 38) 차웅식.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1997. p. 27 ; 광제비급 4권에 향역 49종이라고했으나, 실제 내용에는 목차에 없는 白芷가 추가되어 50종이다.

』, 『경약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조사학교실. 한국의학사논문집. 1995.
2. 김형태, 윤창렬. 방약합편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 의사학회지. 1991. Vol.5(호)
3. 대한한약협회백년사편집위원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약협회백년사. 2006.
4. 김남주, 문옥륜, 신현규, 남봉현. 한방의료보험활성화를 위한 한약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 개발.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1996.
5. 高曉山. 中葯葯性論. 서울. 정담. 1994.
6.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7.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방정균 외 6명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8. 차웅석.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1997.
9. 柳長華. 李時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0. 서영배. 중국의 본초학사. 대전. 대전대학교대학원. 1990.
11. 약사법(1965,4,3, 법률 제1694호)
12. 윤재창. 최신 경향 한약업사시험문제집. 서울. 대광인쇄사. 1980.
13. 李志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4. 車雄碩.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2001.
15. 신순식. 한국한의학사 재정립(상).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16. 韓榮穆. 도올 김용옥선생님의 동의수세보원 강의. 동국대학교. 1994.
17. 洪元植, 尹暢烈. 新編中國醫學史. 대전. 周珉出版社. 2004.
18.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96.
19.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20. 好讀書 도서소개 홈페이지.  
www.bookssearching.com
2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